

“강진군, 군유림 138만여평 헐값 매각”

운용리 문화재 보호구역 시세 3분의1에 팔아

시민단체, 전남도에 감사 요청 ... “환수해야”

강진의 한 시민단체가 대규모 군유림을 군이 한 기업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강진지역 시민단체 강민회는 4일 “강진군이 지난 2006년 매각한 대구면 운용리 땅이 헐값에 매각됐으며, 이 행정행위의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 최근 전남도에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강진군이 D기업에 군유림을 매각하면서 ▲매각해서는 안 되

는 문화재(사적지 68호) 보호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강행 ▲매각할 경우 임도 개설 및 조립 비용 등 투자비용 회수 조치 미이행 ▲매각 후 조례 개정에 대한 위법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강민회는 강진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차테마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자요지 100여 기가 매장돼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 내 군유림을 헐값에 매각한 것

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강진군이 20~30년생 삼나무, 참나무 등의 가격을 반영하도록 당시 산림부서에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강진군이 이를 무시하고 138만여평의 대규모 토지를 시세의 3분의 1에 불과한 평당 2573원에 매각하면서 군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강민회 관계자는 “당시 문화재 주무부서에서 문화재 보호구역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이 불가하다는 의견과 함께 이 지역은 청자요지 백 수십여 기가 매장된 주요 문화재로 매각불가의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군이 잡종재산으로 간주해 매각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또 군이 지난 2006년 4월27일 군유림을 D기업에 매각한 지 4개월이 지나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도 문제라는 입장이다. 강민회는 이에 따라 매각 재산 중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허가를 받지 못해 개발할 수 없는 문화재보호구역 내 면적을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진군 관계자는 “적절한 절차를 밟아 진행한 만큼 헐값 매각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현상변경허가 절차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동심 유혹하는 벚꽃

지난 3일 강진군 군동면 금곡사를 오르는 지방도의 가로수 벚꽃이 순백의 꽃망울을 활짝 터트려 봄나들이를 나온 어린이들을 반겼다. 지방도 829호선 가로수 벚꽃은 군동면 호계리에서 작천면 용상리까지 19km가 터널을 이루어 매년 상춘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강진군 제공>



베트남 이주여성 친정집 지어줘 화제

장흥군 새마을회

장흥군 새마을회가 장흥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 관리단 등의 지원을 받아 이주여성의 친정집을 지어줘 화제가 되고 있다. 장흥군 새마을회는 4일 “지난달 15일 장흥 부산면으로 시집온 티나린(21)이 살았던 베트남 떠돌이집 드코와현에 방 2개와 거실, 욕실, 주방 등이 갖춰진 20평 규모의 현대식 별동집을 준공했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사진)에는 새마을지도자와 군 직원수자원공사 직원이 참석했으며, 현지

에서 즉석 모금한 금액으로 TV 1대와 식탁을 구입해 전달하기도 했다. 다문화가정 친정 보내주기 사업을 하고 있는 장흥군과 한국수자원공사 전남서남권 관리단이 1000만원의 건축비를 지원하면서 올 초 공사에 착수했다. 장흥군 새마을회 관계자는 “기뻐하는 티나린씨와 가족들의 표정을 보면서 좋은 사업을 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더 많은 이주여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사랑의 집짓기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담양, ‘천년 마을숲 조성’ 18개 마을 참여

담양군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천년을 이어갈 마을숲 조성사업’에 현수자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담양군은 4월 “지난달 28일 천년마을숲 조성을 위해 담양읍 가산마을을 비롯한 18개 마을과 무정면 오래천 주변 천변을 따라 각각 254주와 124주의 느티나무를, 담양읍 외곽도리엔 은행나무 18주 등 총 398주를

심었다”고 밝혔다. 마을숲은 정자나무와 마을 주변 유휴공간에 느티나무를 식재한 ‘마을숲’, 마을 인근의 하천변을 따라 선형으로 조성한 ‘하천숲’으로 나뉜다. 특히 이번에 식재한 느티나무 380여주는 지난해 말 조경사업으로 담양과 인연을 맺은 나주의 김영숙·유한춘씨가 현수한 것이다. /담양=정재근기자 jgg@kwangju.co.kr

나주, 소송·행정심판 담당 변호사 채용

나주시가 소송 및 행정심판 업무 등을 수행할 변호사를 채용한다. 4일 나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자문 형태로 외부에 의존했던 소송 등의 업무를 자체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지방 전담계약직 변호사를 채용하기로 했다. 근무 부서는 정책기획실이며, 지급은 지방전담계약직 나급(6급)이다.

채용된 변호사는 2년간 소송 및 행정심판,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자문 및 심사, 시정 현안업무 법률상담 및 자문 등을 맡게 된다. 시는 오는 11일부터 3일간 응시 원서를 받아 서류 전형, 면접시험을 거쳐 2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나주=손영철기자 ycon@

장흥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 115억 돌파

20년만에 ... 2750명에 장학금 지급

장흥군 인재육성 장학회 기금이 지난달 말 현재 115억원을 돌파했다. 지난 1994년에 군 산하 공직자와 출향향우, 군민들이 고향사랑 담배판매운동으로 시작한 장흥군 인재육성 기금이 20년 만에 115억원의 기금을 모아 인재 육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기금 초창기인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 동안 담배판매 수익금으로 13억3000만원, 군비

출연금 6억7000만원 등 20억원에 달하는 장학회는 1996년부터 올해까지 18년째 장학사업을 펴고 있다. 군은 지속적으로 보다 발전적인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매년 일정 금액을 출연해 올해까지 모두 53억원을 내왔다. 나머지는 지역주민과 출향향우의 기탁과 모금으로 채워졌다. 장흥군 인재육성 기금 모금 붐은 이제 마을단위까지 퍼져 현재 10여개 마을이 많게는 수백만원에

서 수천만원까지 내놓고 있다. 지난 18년간 지급된 각종 장학금은 114억원으로, 이 가운데 장학생수는 대학생과 중·고교생을 포함해 275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 장학생들은 사법·행정·입법·외무 등 고시 합격자들과 성취 우수자의 격려, 명문고 육성, 영어타운 운영 등 교육환경개선 등에 쓰이고 있다. 한편, 인재육성 기금은 지난 2009년 7월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 (재)장흥군인재육성위원회 재단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장흥=김용기기자·중부취재본부장

지하수 사용 학교 아직도 36곳이나

대부분 농촌·산골... 상수관 매설 안돼 대책 시급

전북 도내 일선 학교 36곳에서 아직도 오염 우려가 큰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달 현재 지하수를 마시는 물로 쓰는 학교는 익산 왕복초와 남원 산내초 등 총 초·중고 3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학교는 대부분 농촌과 산골에 있는 관계로 상수관이 매설이 안 돼 지하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중 일부는 2017년까지 상수도 인입 계획이 세워져 있으나 대다수는 중장기적인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아 오염된 지하수로 인한 감염 우려에 노출돼 있다. 지난 1월 11일 전주교 학생 30여명이 설사와 복통 등을 호소한 집단발병의 원인도 지하수를 매개체로 한

‘노로바이러스’로 밝혀졌다. 이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섭취하거나 바이러스가 묻은 물건을 접촉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들 학교에서는 언제든 오염된 지하수 때문에 장염과 노로바이러스 등으로 말미암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 건강안전과와 한 관계자는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물이나 우리가 마시는 물로 인한 질병 전염의 위험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면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학교에 대한 상수관 설치 사업에 교육청과 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주=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



관광객들이 신관사도 부임행차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올해 부임행차는 이번 주말부터 시작된다. <남원시 제공>

주말마다 ‘신관사도 부임행차’ 재연

남원시 10월말까지

남원시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 말까지 ‘신관사도 부임행차’를 재연한다. 남원시는 매주 토·일요일 오후 2시 사랑의 광장~관광루터 구간에서 신관사도 부임행사를 한다고 밝혔다. 부임행차는 고종연 전통의상, 깃발, 가마, 수레 등을 사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살려 유·무형 전통 문화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시민 80여명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펼치는 부임행사는 행차 전·후 축하 공연으로 마당 춘향전, 취타대 연주, 육방 퍼포먼스, 코믹한 기생 춘향무 등을 선보인다. 관광객 체험행사로 주리틀기, 번사또와 민속놀이게임 등

이 3시간여 동안 펼쳐져 남원의 색다른 체험마당이 제공된다. 신관사도 부임행차는 6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상설문화 관광상품으로 순수시민 참여형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남원시 문화관광과 김현욱 담당은 “신관사도 행차 프로그램은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지리산둘레길 등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알차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전주 음식업 백반업소 최다

6700여곳 중 2300여곳
비빔밥 업소 34곳 불과

전주지역 음식 업종 중 ‘백반’을 전문으로 하는 업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 전체 사업체 4만5000여곳 중 음식업소는 6707곳으로 14.6%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백반을 다루는 업체가 3분의 1가량인 2323곳으로 조사됐다. 이어 전통차집·커피집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전주의 대표적 음식인

비빔밥 업소는 34개에 불과했다. 음식업소는 주거 밀집지역인 우아동, 중화산동, 평화동, 서신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로 지정된 전주시는 음식 업종과 지역 등을 고려, 조만간 음식문화거리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한옥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연간 500만명에 육박함에 따라 음식문화 거리는 방문객의 동선에 맞고 옛 도심을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에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순창서 국제 테니스·정구대회 열린다

4월 순창에서 국제 테니스·정구대회와 각종 국내대회가 줄지어 열린다. 4일 순창군에 따르면 2013 순창 국제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가 6~14일 순창군 공설운동장 테니스코트에서 열린다. 대한테니스협회(회장 주원홍)가 주관하고 국제테니스연맹이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6개국의 16~18세 선수와 임원 250명이 참가한다. 또 오는 18~24일에는 동아시아 정구국가대표 선발전, 20~21일 순창군민체육대회, 25일 전북에르스신체육대회, 27일 전북도민 걷기대회가 연이어 개최된다.

8월에는 국제주니어 초·중·고 테니스대회가 예정돼 있고 9월에는 국제정구대회가 순창에서 막을 올린다. 순창군은 대회를 위해 숙박시설, 음식점, 위생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친절교육과 위생점검을 마쳤다. 군은 외국선수단 교통편의를 위해 공설운동장과 숙박시설을 오가는 순환버스도 하루 12차례 운행할 계획이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

단신

고창동학농민사업회, 녹두대상 수상자 선정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는 4일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및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제6회 녹두 대상 수상자로 ‘동학농민혁명 100년 - 혁명의 들불, 그 황토길의 역사찾기’ 집필진 김은정·문경민·김원용씨를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25일 무장유성축제

기념식장에서 개최된다. 동학농민혁명 100년 집필진은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기념해 1993년과 1994년 2년간 혁명의 핵심 사건인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20년 역사의 숨결을 찾아 그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했다. /고창=박금식기자·전북취재본부장

6일~14일 정음예술제·벚꽃 길 문화공연

벚꽃개화기간에 맞춰 6일부터 14일까지 정음 중앙로 일원과 정음천변 특설무대에서 제17회 정음예술제 및 벚꽃 길 문화공연이 열린다. ‘새봄 벚꽃맞이 거리 문화공연’이 정음시와 지역문화예술단체들이 주관해 6일부터 14일까지 정음천변 어린이 축구장 특설무대에서 이어진다.

올해로 창립 31주년을 맞는 (사)한국예총 정음지회에서 마련한 제17회 정음예술제도 12일부터 14일까지 정음천 어린이축구장 특설무대와 시내 일원에서 열린다. 정음예술제는 예총정음지회 산하 국악·무용·문인·미술·사진작가·음악·연극 등 7개 단체가 주관한다. /정음=박기섭기자 parkks@

남원, 여덟번째 새싹작은도서관 개관

남원시에서는 카페 같은 아늑한 작은도서관이 여덟번째로 개관을 했다. 4일 오후 지리산 동부권인 인월면의 정보와 문화센터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새싹작은도서관 개관식이 지리산새마을금고 2층에서 열렸다. 개관식에는 장주호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해 하대식 도의원과 이 지역 출신인 남원시의회 김종관, 윤지홍 시의원과

오재대 인월면장 등 각 기관·단체장, 주민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개관식에는 새싹작은도서관은 전북의 작은도서관 공모사업에 선정돼 도비 5000만원 등 총사업비 1억원이 투입됐다. 132㎡의 규모에 3000여 권의 장서가 보관돼 있으며, 독서공간, 주민센터 공간, 각종 자료 검색 공간 등도 설치됐다. /남원=백성기기자 bs8787@

순창, 송만규 화백 초청 한국화 교실

섬진강 화가 송만규 화백의 격조 높은 수묵 산수화 기법을 순창군민들이 전수받게 됐다. 순창군이 ‘섬진강 A+A 타운벨트 조성사업’ 일환으로 송만규(58) 화백을 초빙해 지난 3일부터 한국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화(산수화) 교실은 12월까지 9개월동안 매주 수요일 3시간씩 문화의 집에

서 섬진강을 배경으로 개최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3일 문화의 집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겸한 개강식을 가졌으며, 수강생 등 30여명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송만규 화백은 전북 안주 출신으로 원광대 미술교육과를 졸업하고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전북지회장을 역임했다. /순창=이동희기자 dhlee@